

- 본문 : 민수기 30장 1~5절
- 제목 : “거룩한 서원, 거룩한 헌신”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 본문 읽기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 · 마음의 문을 열며

신학자 메튜 헨리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은 분리의 울타리 혹은 담과 같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 서원에 자신을 종속시키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지키려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나 담의 속성은 경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울타리와 담은 우리를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서원이 울타리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서원이 담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서원을 가르치고, 서원에 대해 경솔하지 않기를 경계하며, 진실한 서원이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당신은 ‘서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민수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1~2절) 모세가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 민수기 30:3~9에서 모세가 서원에 대해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참고, 전 5:4~5)
3. 신명기 23:21~23에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창세기 28:20~22에 나타난 ‘야곱의 서원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사무엘상 1:10~11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서원기도’와 그 서원의 실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5. 거룩한 사명을 알고 거룩한 특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서원이 거룩한 헌신을 낳는다’는 신앙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서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실바누스 펠프스 작사(1862), 로버트 로우리 작곡(1864)의 이 찬송이 바로 서원 찬송입니다. 찬송가 216장을 부를 때마다 거룩한 서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성도 안에는 “거룩한 서원, 거룩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서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말씀기도제목

1.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경솔한 서원’을 삼가고 “진실한 서원”에 헌신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2. “서원”이 울타리와 담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요 복임을 깨달을 때 서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서원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3. 송원교회가 「하나님의 뜻 묵상」 성숙시리즈를 통해 “거룩한 서원”을 깨달아 “거룩한 헌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